지역 작가들의 중국 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중국 북경창작센터 스튜디오(왼쪽)와 외부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립미술관, 지역작가 해외 진출 교두보 확대

사업 8년만… 해외 레지던시 뉴욕·상해 등 4곳 확대

양산스튜디오, 琮문화문예창작 공간으로 이전 검토

광주시립미술관이 청년작가 발굴과 작가들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창작스튜디오(창작 레지던시)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시립미술관이 지난 1995년 광주 팔각정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작 레지던시 사업을 도입한 지 8년만이다.

13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중국 북경 창작스튜디오 외에 해외 레지던시 공간을 내년까지 3개국 4곳으로 확대하고, 양산동 창작스튜디오를 이전한다.

미술관은 중국 상해, 미국 뉴욕 그리고 유럽(영국·프랑스·독일 중 1개국) 등 3개국에 지역 작가들을 파견하는 해외 레지던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시립미술관은 북경 창작스튜디오와 함께 3개국, 4곳의 해외 레지던시와 국내 1곳의 레지던시를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그동안 광주 양산동 스튜디오와 북경 창작 스튜디오 등 국내·외 레지던시를 운영해왔다.

미술관은 연내에 중국 젠다이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상해 히말라야미술관에 지역 작가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미술관은 최근 광주를 방문한 히말라야미술관 윙션킷 관장과 이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1차로 작가 2명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히말라야미술관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전시, 교육, 컬렉션, 연구 및 국제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히말라야미술관은 입주 작가들의 전시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미술관은 공고를 통해 파견 입주 작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뉴욕 퀸스 미술관과 작가들의 레지던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예술 엘리자베스 재단(The Elizabeth Foundation for the Arts)과의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예술 엘리자베스 재단이 운영하는 레지던시에는 89개 스튜디오에 100여명의 작가와 큐레이터가 입주해 있을 정도로 시설과 규모 면에서 전문성이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최근 뉴욕에서 두 기관을 모두 방문해 지역 작가 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며 "내년 내에 예산을 마련해 작가 2명을 파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운영중인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개편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양산동 창작스튜디오가 노후화 등으로 문제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옛 서구청 건물에 조성중인 아시아문예창작공간 등에 스튜디오를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레지던시 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내에서 검증된 작가들을 해외로 보내는 창구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9년 개관한 북경 창작스튜디오 배출 작가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도 해외 레지던시 파견 사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제3기 입주작가로 현재도 북경에서 활동중인 박소빈 작가는 최근 미국, 스페인 등 2개국 3개 미술관에서 순회 전시를 열고 있는 등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레지던시 외에도 지역에 많은 레지던시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레지던시 등을 통해 검증받은 작가들을 해외로 보내고, 세계적인 레지던시 공간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이 팔각정·양산동·북경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배출한 작가는 모두 140여명에 이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6일 '광주문화포럼' 4번째 강좌

박영욱 숙명여대 교수, 미디어아트 분석

광주일보사와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이용우)이 공동 주최하는 '광주문화포럼' 4번째 강좌가 16일 오후 2시~4시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3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박영욱〈사진〉 숙명여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미디어아트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를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분석한다.

박 교수는 최근 천편일률적으로 반복되면서 새로운 것이 사라진 미디어아트 속에서 새로운 소통 방식과 세계관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진부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미디어아트에 숨어있는 새로운 영역과 세계관, 의사소통체계, 예술작품의 의미변화 등을 사회철학적인 차원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 교수는 현대미술과 매체예술, 건축, 대중음악, 예술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디어아트는 X예술이다',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철학으로 대중문화 읽기' 등 다수가 있다.

다음 강좌는 11월20일 오후 2시 '디자인, 거시기 머시기'(이영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를 주제로 열린다. 문의 062-608-424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자신만의 풍부한 바이올린 감성

18일 이경민 독주회… 주희성 서울대 교수 피아노 반주

주희성

이경민

바이올리니스트 이경민씨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중인 아버지 이형석(전남대 음악학과)교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과 친구가 되었다.

오거스틴 레온 아라 교수에게 발탁돼 벨기에로 음악 유학을 떠난 게 아직 어린 티도 벗지 않았던 9살. 이후 브뤼셀 왕립 음악원에 최연소로 수석 입학하고, 최고 과정을 최연소로 수석·조기 졸업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만의 캐리어를 쌓아나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왕립음악원을 거쳐 프리미오 팔라우 콩쿠르에서 우승한 그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벨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수 아티스트만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퀸엘리자베스 콜리지에 입학, 수석 졸업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씨가 오랜만에 광주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18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소나타곡들로 꾸몄다. '색채'라는 공연 타이틀처럼 모차르트, 야나체크, 프랑크 등 다양한 느낌의 소나타곡들을 자신만의 풍성한 색감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이씨는 30여차례의 독주회를 비롯,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광주시향 등과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성남시향 등의 객원 악장을 역임하고 벨기에 현악챔버오케스트라 '워털루 솔리스트 앙상블' 객원악장 겸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는 이화여대와 동덕여대에 출강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주희성 서울대 음대 기악과 교수가 맡아 무대를 빛낸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

'노벨문학상 효과' 앨리스 먼로 작품 판매량 급증

'행복한 그림자의 춤' '떠남' 등… 원서에도 관심

올해 노벨문학상에 선정된 캐나다 출신 앨리스 먼로(82)의 작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앨리스 먼로의 저서가 평소에는 판매량이 거의 없었지만 발표가 나온 10일 밤 8시 이후부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68년 발간된 첫 소설집이자 캐나다 총독문학상을 안긴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11일 오후 6시까지 354권이 팔렸다. 먼로 특유의 정치한 스토리텔링과 긴장감이 반영된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은 89권이 판매됐다.

'떠남', '열정' 등이 수록된 단편집 '떠남'은 총 44권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먼로를 비롯한 작가 15명의 소설이 수록된 단편모음집 '직업의 광채'도 35권이 팔렸다.

최세라 예스24 도서팀장은 "노벨상 선정을 계기로 먼로의 작품 판매량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판매중인 작품이 적다보니 원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기자skypark@